

# 구례 산수유꽃축제, 4년 만에 관광객 맞는다

3월11일 '영원한 사랑찾아서' 전세대 대상 40개 프로그램 마련 "봄꽃 대표지역 자리매김 총력"

봄의 시작을 알리는 구례 산수유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구례군은 지난 13일 구례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 제24회 구례산수유꽃축제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제24회 구례산수유꽃축제는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를 주제로 3월11~19일 산동면 지리산 온천 관광지와 산수유 군락지 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공연, 체험, 판매 등 총 40여 개 프로그램

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전 공연에서는 원촌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과 성인들로 구성된 구례합창단이 산수유 로고송인 '구례의 산수유'를 부르고 작년에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호남여성농악 공연도 펼쳐진다.

개막 공연에는 TV조선 '미스터트롯' 탑6에 올랐던 트로트 가수 '장민호'와 트로트계 흑진주 박해신, MBN 조선판스타 우승자이자 구례군 출신 가수 김산옥과 구례 대표가수 이정옥이 무대를 장식한다.

지역 청소년과 지역 청년들이 기획·공연하는 '우리동네 버스커' 공연,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한 버스킹팀 공연, 구례 출신 트로트 가수 기획공연인 '벳츠디스

코'와 국가무형문화재 농악공연 등이 펼쳐진다.

어린이를 위한 '키즈데이'도 운영한다. 산수유꽃을 감상할 수 있는 휴쉼터도 조성했다. 어린이 동반 가정과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마술쇼, 버블쇼 등 테마공연을 준비했다.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산수유 씨와 과육을 분리하는 체험인 '산수유 열매 까기 대회'가 마련됐다.

산수유꽃길 걷기 프로그램은 3개 테마로 구성했다. 가족 단위 걷기 프로그램인 산수유패밀리워크,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의 산수유꽃길-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 걷기 코스인 러브앤힐링로

드 프로그램이다.

구례군은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한 걷기 챌린지 이벤트와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활용한 관광지 연계 이벤트도 추진한다. 완주자에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산수유꽃을 시작으로 화엄사 흥매화, 구례300리 벚꽃, 섬진강 갯꽃 등을 걸으면서 봄 정취를 만끽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구례군은 구례300리벚꽃축제를 서시천체육공원과 300리 벚꽃길에서 오는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개최하며 구례를 봄꽃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다동이 꿈 키움 사업 결연식 순천시, 지역기업과 후원

순천시는 지난 14일 시장실에서 '다동이 꿈 키움 사업' 결연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동이 꿈 키움 사업'이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기업과 다자녀 가정 간 일대일 결연을 통한 후원사업으로 올해로 6년째 128개 기업이 참여해 130가정에 총 1억5600만원을 후원했다.

올해는 순천시에 연고가 있거나 주소를 둔 18개 지역기업이 참여해 지난해 넷째 이상을 출산한 가정 등 18개의 다동이 가정에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1년간 후원한다.

순천=배서준 기자

'100원 마중택시' 오지마을서 인기 순천시, 이용횟수 5회로 늘려

순천시가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100원 마중택시'가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100원 마중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탑승권(카드형식)과 100원만 내면 자택이나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읍·면·동, 64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돼 15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대상 마을은 읍·면·동 내 마을 소재지와 버스승강장과 거리가 700m(동은 1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선정 마을 거주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나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이용 횟수를 1인당 월 4회에서 5회로 늘렸다.

순천=배서준 기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박차 장흥군, 민원제도 혁신 추진

장흥군이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자체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민원제도 혁신의 첫 번째는 전문적인 상담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상담인제'다.

민원상담인은 지역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를 전문상담사로 위촉해 고충민원 부서별 상담 및 조율 등을 추진한다. 장흥군청 소관 업무 외에 정부 각 부처 소관에 관한 업무 상담을 통해 추진 중인 '민원후견인제'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상담인제는 2023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시간 감축 및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서식 작성에서 QR코드(출생신고서 등 10종)를 비치해 운영한다.

군은 수유실을 전면 재구성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수유환경 제공은 물론 적극적인 출산분위기 장려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서 합동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제동기(AED) 교육 및 민원장구 투명 강화유리 가림막(34개소 / 본청 17, 읍면 17) 설치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시가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100원 마중택시'가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장흥군 '안전이 일상' 재난없는 지역 만들기 총력

중대재해팀 신설 등 안전 최우선

장흥군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흥군은 안전이 일상이 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시기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명절과 휴가철, 겨울철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자연재난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자연재해 상황을 대비해재해문자전광판,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해 예·경보시설을 계속해서 유지·관리한다.

매년 집중호우 시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인 관산 고읍천, 장평 노선지구에 330억원 사업비로 노후 교량 재정비, 하천정비 사업 등을 실시한다.

상습 침수지역인 대덕 분토 소하천, 용산 봉황 소하천 등 노후 된 소하천의 정비 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팀을 신설해 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 장흥을 구현에도 나선다.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과 관내 택시업체 종사자의 안정적 매출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바우처 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분전함, 등주, 경광·경보등 등 506개소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 확충 및 관리한다.

군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철저히 운영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살기좋은 장흥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 여수시 "점점여수페이 10% 할인판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역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설맞이 점점여수페이(카드형 여수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이달에도 계속 이어간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점점여수페이는 올해 80억원이 발행돼 10% 특별할인 판매 중에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6% 할인 판매로 자동 전환될 예정이다.

1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카드형과 지류형을 합산해 월 50만원이며,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지역상품권 chak(착)' 앱과 대행운영 금융기관(농협·새마을금고·광주은행) 49개소에서 발급과 충전이 가능하다.

여수시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지난 2020년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해 발행규모를 늘려왔다.

올해도 상품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형상품권의 발행 비중을 더 늘리고 상품권 사용자 확대를 위해 가맹점 등록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1년 3월부터 여문지구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점여수페이 5% 추가 현장할인을 4월 이후에는 진남상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은 120억의 예산소진으로 특별할인이 조기 종료돼 현재 6% 할인 판매 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여수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MICE 산업 활성화 나서 여수시, 맞춤형 인센티브

여수시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MICE산업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MICE 인센티브 지급으로 대규모 행사와 회의 유치에 나선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올해 MICE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행사규모, 참여인원, 지역업체 이용실적 등을 반영해 △국내회의의 최대 2000만원 △국제회의의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MICE 산업이 회복됨에 따라 국제회의와 기업회의 유치를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회의의 행사유치 업체에 대한 유치지원금 기준을 참가자 15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한다. 국내 기업회의 지원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여수=이경기 기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최다 선정 광양시, 18개 공동체

광양시는 전남도가 주관하는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18개 공동체가 선정돼 전남도 내 최다 선정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적 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이 함께 돌보며 마을 돌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사업 유형으로는 마을식사, 반찬배달 등의 일반돌봄, 방과 후·방학돌봄을 통한 아동돌봄, 목욕봉사, 집안정리 등과 같은 노인돌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의 의료연계 돌봄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로 사업 규모에 따라 활동경비와 홍보비, 강사비 등 맞춤형 통합 돌봄 활동 지원비 1000만원을 최대 5회까지 차등 지원받게 되며 사업비는 총 1억3000만원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도내 154개 사업 중 100개의 사업을 선정했으며 그 중 광양시가 18개소로 최다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시가 사전에 마을공동체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교육에 이어 공모신청서 작성 컨설팅 등을 실시한 노력의 결실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https://www.gwangya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